

지역 현안 한목소리... 인사청문회 등 성과

민선 6기 1년 <4>광주시·전남도의회

지난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의회는 제7대 의회, 전남도의회는 제10대 의회가 시작됐다. 과거와 달리 초선 의원 숫자가 많아진 했지만, 재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점 체제가 굳어졌다. 그럼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및 산하 기관 및 출자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비롯한 의원 행동윤리강령 제정, 의원 입법 활동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7대 의회 전체 의원은 애초 22명이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했던 이미숙 의원이 당 해체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해 현재 21명의 의원이 활동중이다.

이 중 초선이 14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4·29 재보선을 앞두고 탈당한 김영남(서구 3)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시의회는 150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156건, 예산·결산안 16건, 동·승인안 27건 등 총 29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 등 62건의 조례안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했다.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의 39건보다 높은 수치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산하기관 혁신과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제동이 걸렸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의 공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유도했고, 호남고속철의 서대선역 경유를 막기 위한 장외투쟁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처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집행부와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전체 인사가 늦어지는 등 '집행부 발목잡기'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영표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자동차산업벨트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적극적으로

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 노력 초기 집행부 인사 발목잡기 불협화음도

도의회, 호남고속철 문제 발빠르게 대처 '견제와 협력' 영·호남 교류에도 노력

나서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민선 6기 전남도의회 의원 56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무려 51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개원 초기에는 윤주윤전, 외유 등 일부 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되풀이되면서 전남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도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도의회는 각종 연구모임을 장려해 의원 자질 향상에 나서는 한편 외국 출장을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하는 등 혁신책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서두르는 집행부에 나름의 원칙을 견지해 이를 관철시켰고, 집행부와 협상을 거쳐 지방공기업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냈다. 경북도의회와의 교류사업을 정착시키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내부 정화에도 힘썼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서는 발빠르게 광주·전북도의회와 함께 코레일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향한 방문해 요금 인하와 소요시간 단축을 촉구하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노선 확정과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등의 회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귀농귀유치 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견제할 것은 하고 도울 것은 돕겠다는 것이다.

민선 6기 전남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 6개 특별위원회, 8개 정책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조례 제정이 과거보다 약 2배 이상 늘었으며, 그 가운데 약 53.3%가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상생발전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 출범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창립총회가 2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김수삼 초대 이사장(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2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자 노트

'문학을 부탁해'



박성창 문화2부 차장

작가 신경숙은 표절 논란에 대한 사과도 '문학적으로' 했다. 그녀는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본 결과,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작품에서나 쓰는 화법을 구사해 다양한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표절을 했다는 것인가? 안했다는 것인가? 변명 같은 사과에, 소설 같은 표현에, 작가지적 양심을 믿었던 독자들은 실망감에 빠졌다.

신경숙에게는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수사가 따른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다. 신 작가가 이룩한 나름의 문학적 업적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젓는다. 상한 일색의 주례사 비평이 만든 '거품 작가'라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출판사와 문예지, 비평가들이 합작해 만든 '신화'라고 비판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도 있다. 필사나, 독서의 영향으로 특정한 문장이나 표현이 뇌리에 남을 수 있다. 창작은 되새김질과 숙성의 과정이 연계되기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도 이것은 아니다. 신 작가는 새 작품을 발간하면 수만 권에서 수십만 권씩 판매고를 올리는 작가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경숙은 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부

채의식을 지녀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명원 경희대 교수는 23일 작가회의 토론회에서 "돈과 패거리 권력으로 무장된 한국문학이 신경숙 사태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오길영 충남대 교수는 SNS를 통해 "창비(창작과비평)와 문동(문학동네)이라는 한국 문학

계의 권력 집단과 베스트셀러 작가의 공생관계가 끊어졌다"고 단정했다.

집중화된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문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절충성 같은 절대권력도 무너지는데 허물며 인간

간의 내밀한 생각과 감성, 삶을 다루는 문학인을 오조하라. 물론 어느 분야든 최고 위치에 오른 이의 권위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권위는 인정하되 폐쇄적인 권력은 생태계 건강성을 위해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세계 각국 언론도 신경숙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신 작가는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36개국에서 번역될 만큼 인지도가 높다.

이제 그녀가 '문학적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때다. 문학적 폐쇄적인 문단권력을 개선하고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신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가슴을 형성화한 얘기다. 공교롭게도 한국문단은 자체 정화작용을 상실해버린 '문학을 부탁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광주 원로회의, 시정발전 지혜 모은다

민선 6기 회의... 21명 위원 위촉

광주시는 24일 광주 원로회의의 첫 회의를 열고, 민선 6기 시정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청에서 열린 원로 회의에서는 교육, 문화예술, 경제,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 등 지역사회 각계 원로 2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신임 의장에는 정구선 광주 NGO시민재단 이사장이 추대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광주 발전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역사적 책임을 갖고 시정에 임하고 있다"며 "메르스 여파를 잘 극복하고 U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러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광주를 국제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원로들은 민선 6기 광주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원로들은 "U대회 경기장이 썰렁해서 안된다"며 "많은 시민이 경기장을 찾아 힐찬 박수와 열띤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광주의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U대회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원로들은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이 축소되고 있어 광주지역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위촉된 원로들은 향후 2년간 시정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현안 발생의 견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394억·전남개발공사 587억... 부채 줄었다

행자부, 398개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부채 총액이 지난해 각각 394억원, 587억원 감소했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3000억원이 줄어 12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광주도시공사 등 398개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658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0%였으나 지난해 결산결과 6186억원으로 감소했다. 광주도시공사의 자본은 316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96%로 2013년에 비해 24% 낮춰졌다.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지난해 2013년 6846억원에서 6259억원으로 줄었다. 전남개발공사의 자본은 4984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26%(2013년 136%)를 보였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398곳은 모두 8965억원의 경영손실(적자)을 기록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24%, 2861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방공기업 적자 규모가 감소한 데에는 도시철도(7개)와 도시개발(16개) 등 지방공사의 적자가 2013년 6831억원에서 지난해 4078억원으로 2753억원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작년에 각각 2470억원과 1000억원 가량 흑자를 냈다.

그러나 자치단체 지역 지방기업인 지방하수도(87개)는 398개 지방공기업 전체의 적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조 3362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다. 지방공기업 부채 총액은 73조6000억원으로, 1년 만에 3000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부채 감소는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전남도는 24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자 연전화적 학습을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하반기(7~12월)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화교육기관을 제외한 전남 지역 일반 대안학교는 8곳으로 학생 수는 170명이다.

전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적 혜택이 제도권 학교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무상급식을 추진했다. 광주시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남 지역 일반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다. 전남도는 6월 말까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위탁운영 기관인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